

Magnat Quantum 503

착색 없이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발성



지금 금의 하이엔드 스피커 시스템을 기준으로 일반 가정용 시스템의 품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사실 이런 명제에 쉽게 답을 내리는 것은 소위 오디오 전문가라도 어려울 듯싶다. 각기 다른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의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지금의 스피커 시스템이 기술력의 획기적인 진보보다는 이른바 듣는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온 것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필자에게만큼은 지금 받아들은 이 스피커 시스템을 들여다 볼수록 그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스피커가 들려주는 사운드는 이른바 현대적이며, 최근의 하이엔드 스피커들과 그 가는 길이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스피커는 독일의 중저가 브랜드 마그낫의 신형 퀴텀 시리즈의 중급 북셀프 제품인 503이란 제품이다. 마그낫은 제품의

충실도에서만큼은 어느 독일산 브랜드에 비견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과 가정용 오디오 시장을 넘나드는 동사의 제품개발 기술은 단순한 네트워크의 설계기술뿐 아니라 기본적인 스피커 유닛의 개발공급까지 가능한 종합 개발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제품의 완성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보증된 상태라 할 만하다. 게다가 가격을 확인하고 나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하게 추천기 목록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품의 사양은 그리 화려하지 않다. 역시 거꾸로 말하면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특이한 점을 꼽으려면 최근의 스피커 설계 경향에 맞도록 고역의 응답대역을 55kHz까지 신장했다는 정도. 이 트위터 유닛을 동사에서는 'Fmax'라고 명명하였는데, 형태

상 1인치의 섬유재질의 돔으로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특수 댐프 재질의 코팅을 통하여 다이내믹스와 응답대역의 확장을 이루었다고 한다. 일반적인 가청대역을 넘는 응답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SACD와 DVD 오디오의 포맷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동사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론상 30Hz까지 응답하는 저역은 얇게 알루미늄 코팅된 미드우퍼 유닛을 통하여 재생해내는데, 얼핏 보기에도 운동량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유닛은 통올림이 적게 잘 마무리된 베이스리플렉스 울림통을 통하여 청감상 충분한 양감과 반응속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소리는 어떨까.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적인 소리의 지향점을 정리해보면 앞서 필자가 지적한 대로 이른바 '현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다. 물론 그 절대적인 퀄리티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그 성향의 지향점은 빠른 반응성과 광대역의 재생 그리고, 착색이 적은 서라운드 스페이스의 재생이라는 근래 하이엔드의 명제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렴한 북셀프 형태의 스피커에 이러한 거창한(?) 명제에 대비(對比)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한 비교가 아닐까.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본기의 성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비교상대가 된다는 점에 굳이 이론(異論)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인다. 엘렌 그뤼모(Helene Grimaud)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DG, 474 869-2)에서는 총기 있게 연주하는 그녀의 피아노 터치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과장되지 않는 연주무대와 선명하게 표현되는 악기는 이 앨범의 장점. 503은 이러한 앨범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표현되는 배음은 깔끔하고 적당히 조여진 음상으로 포커싱의 묘사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에 가깝다. 적어도 이 가격대 스피커들에서 보이곤 하는 거북한 버릇이나 착색 등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것만으로도 청취를 즐겁게 만든다. 계속된 청취에서 잉거마리 군데르센의 'Make this moment' (MKSA 66402) 재즈 보컬은 음색의 깔끔한 표현과 무대의 펼쳐짐이 좋다.

역시 포커싱의 표현이 좋아 각 악기와 목소리의 정위감도 풍부하게 표현되는 편. 다만 전반적으로 전개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표현되는 점은 좋지만 음악적 깊이의 표현은 다소 소극적으로 보인다. 이는 지적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503이 들려주는 첫인상은 어디까지나 현대의 하이엔드 성향에 비교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큰 착색 없이 선명하고 자연스런 발성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굳이 부족함을 찾으려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음

악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더 실어 준다.

물론 켄트 나가노(Kent Nagano)의 브루크너 3번 교향곡(HMC 901817)에서는 낮은 응답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 않고, 그 세밀한 묘사에서는 고가의 스피커와 완전히 같은 맥락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특히 저역의 공간표현에서는 가격을 뛰어넘지 못하는 감각이 엿보이기도 한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반적인 503의 사운드는 근래 보기 드물게 자연스러우며, 필자에게 대단히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특히 스테레오 재생의 모습이 멀티채널 운영에서보다 더 음악적인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은 503의 장점이다.

전반적으로 정리할 때 503은 기술이 담보된 굴곡 없는 튜닝으로 높은 하이파이적 성능과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보급기 제품이라 할 것이다. 특히 들려주는 사운드의 품질을 고려하면 가격은 대단히 합리적이며, 굳이 가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장르에서 음악적인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제품인 듯싶

다. 최근의 침체된 중저가 시장의 활력을 넣을 제품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심성보)



수입원 : 태인기기 (02)971-8241

- 가격 : 43만원
- 구성 : 2웨이 2스피커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사용유닛 : 우퍼 17cm, 트위터 2.5cm
- 재생주파수대역 : 39Hz-55kHz
- 크로스오버 주파수 : 3.2kHz
- 임피던스 : 4-8Ω
- 출력음압레벨 : 90dB
- 파워 핸들링 : 150W(최대)
- 권장 앰프 출력 : 20W
- 크기(WHD) : 20x35x28cm
- 홈페이지 : www.magnat.de

업계동정

소리몰, 용산에 새로운 전시장을 개장



최근 많은 온라인 오디오 쇼핑몰들이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바로 소리몰. 대전에서 온 오프라인 오디오 전문점을 시작한 소리몰이 지난 12월 1일 서울 용산에 새로운 전시장을 개장한 것. 이번 확장으로 소리몰은 서울과 대전, 즉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전시장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온라

인 쇼핑몰로서 이례적인 만큼 그들의 시도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소리몰의 강점은 제대로 된 오프라인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시청실은 가격대에 따라 나뉘어졌는데, 하이엔드 하이파이 오디오, 초중급 하이파이·홈시어터 오디오, 저가형 홈시어터 이렇게 3개의 시청실이 있다(대전점과 서울점 모두 3개의 시청실을 갖춰 놓고 있다). 이로써 고객들은 좀더 제대로 된 시청을 할 수 있으며, 제품 구매에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소리몰 홈페이지에는 오디오 관련 정보, 제품 설치기 등 유용한 정보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어, 오디오 정보에 목말라하는 애호가들에게 제격인 곳이다. **A**

문의 : 서울점 (02)1600-8990, 대전점 (042)610-5777~8
www.sorimall.co.kr